

일본은 왜 지진이 자주 발생하나요?

일본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지진 다발 지역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국민들에 대한 대피요령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

- 도쿄대학 지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경미한 것을 모두 포함하면 5분마다 한 번씩 지진이 발생한다고 함
- 일본 부근에는 4개의 플레이트(plate)가 충돌하여 약2천여개 이상의 활단층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그 위치는 바뀌고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2. 대피요령 변화

- 일본은 2010년에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지진 대피요령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음
- 이 지침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머리를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함
- 또한 장롱 등을 붙잡고 서있거나 책상 밑에 숨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건물 구조와 기술 발달로 지진발생에 따른 대피요령은 조금씩 바뀌는 추세에 있음

- 1990년대까지 지진이 나면 가장 먼저 부엌의 가스 불을 끄라고 교육하였으나 최근에 권장하는 항목에서 빠졌음
- 대부분의 가정에서 쓰는 LP가스와 도시가스는 일정 수준 이상의 흔들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임
- 또한 탈출구를 확인하는 것 역시 기존에는 권장항목이었으나 과거의 사례연구 결과 먼 거리의 탈출구를 일부러 확보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짐
- 따라서 점차 지진에 취약한 낡은 목조건물과 기와지붕으로 만들어진 주택은 사라지는 추세에 있음
- 지난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 때 사망한 6천여명 중 약 5천여명은 목조주택 붕괴에 따른 압사(대부분 즉사)였던 것으로 밝혀짐

3. 지진에 대한 의식변화

- 지난 2011년 3월에 관측 이래 사상 최고 수준의 지진이 도호쿠(東北)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일본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40%가 향후 20년간 국가건설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하는 항목으로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지적했음
- 그러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직후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다가 점차 그 정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반복될까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

- 지난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재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그 이후 점차 약해지는 경향을 보였음